



# 東國大同空會報

발행인 : 전영화 편집인 : 이계홍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T. 02)733-0303, 02)733-3991~3 인쇄 : (주)한우리SJM

2015년 (단기 4345년) 11월 25일 (수)

<http://dongguk.info>

제236호

“12월 14일(월) 오후 6시30분 앰배서더호텔에서 만납시다”

## 임시 이사회 · 총회 및 동국인의 밤 개최

총동창회의 연말 모임이 3년만에 다시 열린다.

동국가족의 연말 대축제인 ‘임시 이사회 · 총회 및 2015 동국인의 밤’ 행사가 12월 14일(월)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장충동 소재 호텔앰배서더에서 열린다.

매년 12월 송구영신 행사로 개최해 왔던 이 행사는 국내외의 각계각층 동

문이 함께 어우러져 동국인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대동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금년 행사는 “친목, 화합, 미래”를 목표로 외형보다는 내실있게 치른다는 계획이다. 임시 이사회 · 총회에서는 동창회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향적인 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동국인의 밤 행사는 인사말, 축하패 수여 등 의식에

치우쳤던 예년과는 달리 ‘모교 개교 기념 축사’ 등 시 낭송회를 통해 격을 높인다는 컨셉이 준비중이다.

만찬시간에는 건배와 덕담으로 동국가족이 한해 동안 거둔 결실을 자축하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화합과 발전을 결의하게 된다.

동국인의 밤 행사는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되어 40여년째 매년 거르지

않고 개최해온 동국가족 화합의 최대 축제로 인기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창회 분규 등으로 미뤄져 2012년 12월 개최이후 중단되었으며, 총동창회가 안정되면서 3년만에 다시 만남의 장이 마련되었다.

### 지부 · 회 年末年始 모임

▲건축공학과 송년회=12월 1일(화)  
18시30분 모교 상록원

▲사회학과 송년회=12월 4일(금) 18시, 장소 미정

▲동대신문사동인회=12월 4일(금) 19시, 충무로 아리랑가든

▲경영전문대학원 송년회=12월 7일(월) 18시30분, 앰배서더호텔

▲문화예술대학원 송년회=12월 8일(화) 18시, 앰배서더호텔

▲ROTC동창회 회장 이 · 취임식=12월 9일(수) 18시30분, 모교 상록원

▲교육대학원 송년회=12월 11일(금) 18시30분, 모교 ‘라운지 오’

▲동국7080회=12월 11일(금) 19시, 장소미정

▲광주 · 전남동창회=12월 12일(토) 18시30분, 장소 미정

▲불교대학원 송년회=12월 18일(금) 18시30분, 세종호텔

▲불교학과 송년회=12월 18일(금) 18시, 앰배서더호텔

▲사회과학대학원 송년회=12월 23일(수) 19시, 경주 코오롱호텔

▲여자총동창회=12월 28일(월) 18시 30분 모교 ‘라운지 오’

▲경주직할동창회=1월 중 신년회

▲부산광역시=1월 중 신년회

▲경영학과=1월 중 신년회

▲경찰행정학과=1월 중 신년회

### “일면 이사장 퇴진만이 사태해결”

#### 학생이 죽어간다 …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단식 42일째



▲ 11월 14일 이사회가 열린 은석초등학교 앞에서 일면스님 연임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앞줄 앉아있는 학생)이 단식중 함께 시위에 나섰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스님 반대의사 표시가 학내외에 장기간 이슈화되면서 파문이 지속되고 있다.

11월 25일로 김건중 총학생회 부회장은 단식 42일째를 맞았다. 주변인과 의료진은 단식 30일째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했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은 10월 15일부터 모교 본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17일 재학생 2,000여명이 학생총회를 통해 ▶이사장 일면 스님 퇴진과 총장 보광 스님의 사퇴 ▶교육의제를 결의했지만 학교 측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이사장 일면, 총장 보광스님과 대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

최장훈 대학원총학생회장은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45일동안 15m 높이의 조명탑에 올랐다.

학생대표들은 또 8월 15~20일에는 동국대 경주캠퍸스를 출발해 불국사 백양사 통도사 내원사 범어사와 종정 진제 스님이 주석하는 부산 해운정사까지 150km를 걸었다.

8월 31일 총동창회 전영화 회장은 불교계 언론사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세간에 떠돌고 있는 법인이 사장 일면스님의 탱화 절도의혹이 동국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해명되도록 종단도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을 위해 대신 단식하겠다며 나선 한만수 교수 협의회장과 김준 교수 단식도 16일 째다. 부끄러워 시작한 교직원 김윤길 대외담당관도 단식 10일째다.

한편 총동창회는 고문단, 회장단, 사무총장 등이 5차례 농성장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 학생총회 2천명, 이사장 퇴진 의결



제47대 총학생회(회장 최광백, 이하 총학)는 9월17일 오후 교내 만해광장에서 학생 20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학생총회를 열고 ‘문화재 절도혐의 일면스님 이사 퇴진의 건’ 등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표에 그쳤다.

학생총회는 회칙에 따라 재적인원 1/7이 참석해야 성립되는데, 이날 정족수 1788명 이상인 2031명이 참석해 총회 안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총학의 총회 개최는 2000년 후 15년 만이다.

이날 총회 안건은 3가지로 종단개입 반대, 학생권리 혁신, 총학생회칙 추천 각2인, 개방이사 4인) 등이다.

개정에 초점을 뒀다. 종단개입 반대와 대학자치 보장 안건은 ▲총장선거개입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향후 종단개입 방지 약속 ▲총장후보자 추천위에 학생구성원 참여확대, 총장선거 재실시 ▲종단개입 방지책으로 이사회 구조개편(스님3인, 학생·교수·직원 추천 각2인, 개방이사 4인) 등이다.

학생권리 혁신 7개 의제는 ▲체감형 장학제도 변화 ▲불합리한 수강제도 개선 ▲평가항목별 성적공시 공개 의무화 ▲영어강의제도 내실화 ▲학생준칙 폐기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이다.

## 이사 연임 반대 속 일면이사 선임 단식투쟁 – 고공농성 – 종회 부결 외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스님의 행화 절도 의혹 등이 학내외에 장기간 이슈화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학생대표의 장기간 단식에 이어 교수, 직원까지 동조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일면 스님은 지난해 12월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있었던 대한불교조계종 수뇌부 오찬에 참석하여 차기 총장 선출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첫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제289회 이사회의 이사장 선출과정, 행화 절도의혹, 고공농성, 조계종 종회의 이사 추천안 부동의, 단식투쟁, 이사 연임 의결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면 이사장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9월 8일(화)조계종 중앙종회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행화 절도 등 의혹을 받아온 이사장 일면스님의 이사 후보를 종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켰다.

10월15일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

은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책임을 통감하며 총회 의결사항들이 관철될 때 까지 무기한 단식으로 대응하겠다”며 단식을 시작했다.

11월10일 교수협의회 한만수 회장과 김 준교수는 “일면 이사장은 이사직을 내려놓고, 김건중 군도 단식을 거두며, 이사회는 일면스님을 이사장으로 연임하는 결정만은 안된다”고 밝혔다.

11월13일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은 사부대중 100인대 중공사에서의 공론화를 제안하며 “동국대 이사회 이사장 선출 유보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11월14일 학교법인 이사회는 일면스님 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11월25일 대학생불교연합 총동문회 등 12개 불교시민단체는 성명을 발표, 동국대 사태 수습을 촉구했다.

범동국인비상태책위원회는 On-Off 라인을 통해 절도의혹 이사장과 표절 총장 퇴진을 위한 ‘집단 명예소송’을 진행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http://goo.gl/forms/5MA2NqHQBr>)

## 고문단대표 단식 농성장 찾아 격려



▲ 이민희 상임고문(서있는 분) 등이 단식 농성 천막을 찾아 김건중 학생을 격려했다.

이민희 상임고문(전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장), 원용선 상임고문(23대 총동창회장), 이석용 고문(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과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고문단 회의를 마친뒤 이사장-총장 관련 학내사태 해결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단식농성 중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 등을 만나 위로했다.

단식농성 천막을 찾은 이민희 상임

고문은 11월20일 현재 37일째 단식중인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을 애恸하게 바라보며 “나도 55년도 총학생회장 출신이다”면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해 달라”고 말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고문 대표들은 이어 총장실로 한태식 총장을 예방, 학교 발전과 학내 문제 조속 해결에 총장께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총장실서 차담을 나눈 이민희 상임고문은 한태식 총장과 함께 다시 단식농성 천막을 찾아 김건중 부총학생회장에게 “건강을 해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리를 떴다.

## “일면스님 의혹 책임져야 한다”

전영화 회장 불교계 기자회견서 밝혀



▲ 전영화 회장(왼쪽에서 4번째)이 불교계 기자회견에서 총동창회 입장을 밝혔다.

본 총동창회 전영화 회장은 8월31일 불교계 언론사 기자회견을 갖고 “동창회 입장에서는 이사장 스님에 대한 종단내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이번 사태는 지난 2월23일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 전부터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곧바로 해명되고 수습되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총동창회는 8월20일 일면스님에게 서신을 보내 “개인적인 일로 동국대의 명성과 전통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말했다.

8월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스님들에게 “종립학교 이사장은 한국불교의 상징성을 갖는 자리로서 동국대 뿐만 아니라 불교계의 신뢰와 위상까지 실추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을 밝혔다.

전 총동창회장은 일면스님이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소납이 행화를 절도하였거나 절도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며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장 일뿐이다”라고 일축했다.

전 총동창회장은 이어 “만약 의혹 해소없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동문 입장에서는 이사 선임반대운동을 펼칠 수밖에 없다”며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지금은 모두가 공심을 갖고 상생하는 모습을 보일때다”고 말했다.

## 동국의외침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한 동문 한 분이 25만 동문사회를 흔들며 물을 흐리고 있다.

이 동문 한 분은 지난 1년 6개월 간 끌어온 동창회 관련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후임 동창회장을 뽑는데 있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동문사회를 소송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다. 전임 회장으로서, 동문 원로로서 화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사람이 전 동국인의 마음을 흐리게 했다.

그 사이 모교는 총장과 이사장 선출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학생회 부회장 김건중 군은 단식 42일째를 넘겼다.

한만수 교수회장은 단식 16일째다. 직원 김윤길 대외담당관도 10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누구보다 동국을 바로 세워 동국 인들의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할 분이 학원의 윤리를 수호해야 할 총장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스님을 선출하는 데 일조해 모교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 일추탁언 (一鯀濁堰)

동문 한 분이 동창회를 흔들고, 이사회를 흔들면서 모교가 허물어지고 있다.

총동창회장 자격으로 동문을 대표해 모교 이사로 선임됐던 분이 이 사직을 내놓고 있지 않다. 동창회장 취임직후부터 준법정관 운운하며 종단을 압박하던 분이 언젠가부터는 종단의 부당한 간섭을 오히려 비호하고 있다.

동창회를 상대로는 소송전을 벌이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소송에서 줄줄이 패하자 이제는 이사직을 지키면서 전 동문들의 정서를 외면하고 한 줌의 건강한 상식도 한 틀의 모교에 대한 애정도 보이질 않는다. 동문을 대표했던 사람이 보이는 뒷 모습치고는 추하기 이를 데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송에서 패해 법적 정통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국장학회의 통장과 인감도 내놓지 않고 있다.

장학회의 돈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임금을 주고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못해 분노가 끓어 오를 수 밖에 없다. 동문 한 분이 모교와 동문사회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상승세를 타고 있던 동국대학교의 추락에 동정을 보낸다. 대학가 주변에서는 내년에는 순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동문들이 힘을 모아 종단과 학교 본부, 학생, 교수, 직원을 독려하며 모교의 위기를 해결해나가도 모자랄 판에 한 동문이 보여주는 행태들은 점입가경을 이루고 있다. 부도덕한 모교 이사들과 함께 이사 선임 과정에 개입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가 하면, 동문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이건만 이사직 만은 끝까지 지키고 있다.

대학은 존경을 먹고 자란다. 대학에서 자라는 학생들이 바르고 굳건하다면, 대학은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훌륭한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 대학은 존경 받는다.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교수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 대학은 존경을 받는다.

우리 동국대학교의 구성원들은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문 대표라는 한 분은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동국대학교를 경영하는 이사님들은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학을 쑹대밭으로 만든 종단의 지도자들은 존경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방죽의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태에 희망을 가져선 안된다. 그보다 물을 흐리고 있는 분들을 하나씩 속아 내야 한다. 그 힘은 동문 모두에게서 나와야 한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모교 동국대학교는 종단의 소유물도, 학내 정치로 밤을 지새우는 몇몇 보직교수들의 소유물도 아니다. 이제 그 힘을 더욱 결집해야 할 때다.

## 고문단 “동창회 안정 환영”



본회 후반기 고문단 회의가 11월20일 정오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희 원용선 상임고문과 이태영 이석용 정인악 김희형 조희영 신윤표 홍파스님 송석환 윤일균 고문 등 11명이 참석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상징적이고,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고문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총동창회를 바르게 세우고, 동문사회가 신뢰할 있는 동창회의 모습을 만들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민희 상임고문은 고문단을 대표해서 “선배들은 이끌어주고 후배는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동창회 현실이 안

타깝다”고 말한뒤 “동문사회가 한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동국의 전통을 빛내는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고문단 회의는 정환민 사무총장의 사회로 동창회 주요 활동과 행사 설명, 동창회 소송 결과 및 모교 소식 보고 등을 가졌다.

고문단은 이 자리에서 △동창회 분규 종식과 화해 △동국장학회 정상화 △모교 재단이사 파송 △모교 사태의 원만한 해결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현안들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맡긴다”며 ‘백지 위임장’에 서명했다.

## ‘동국 위상’ 추락에 우려 표명

### 상임위 동창회 차원 대응책 논의



▲ 제3차 상임위원회가 열려 모교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했다.

본회(회장=전영화)는 일간지와 불교계 언론매체에 회자되고 있는 모교 재단(학교법인동국대학교) 이사장 일면스님의 탱화 절도 의혹으로 인해 모교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8월26일 오후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2015-3차 상임위원회는 “홍국사 탱화 절도는 지난 2월23일 일면스님이 이사장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불거진 의혹으로 이미 해명되고 수습되었어야 할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수수

방관하고 있어 모교는 물론 동문들의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고의 지성과 양심, 정의가 살아 숨쉬는 대학의 이사장은 사회지도층다운 도덕성과 윤리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총동창회가 감시자로 나서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는 위원 30명 중 23명, 감사 3명 중 2명이 출석해 오후6시30분부터 10시까지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 좋은 만남은 ‘축복’ ... 뜨거운 우정 나누다

##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등 모교서 4개 행사 ‘같은 날’ 열려

### 제5회 동국인 남산걷기대회

10월 24일 오후 백발의 노인에서 30대 청년까지 삼삼오오 짹을 지어 모교 팔정도 불상 앞으로 모여들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동국 가족 남산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가을 햇살이 아직은 뜨거운 오후 3시. 광장을 채운 인원은 2백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날 개회식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목멱의 아름다운 단풍이 우리 동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가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동문화합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걷기 구간은 모교 팔정도 불상 앞을 출발해 상록원 옆 남산공원 8번 입구를 지나 남산팔각정까지 올라가 되돌아오는 왕복 3km였다.

남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남산 팔각정까지 오른 참가자들은 기념촬영을 한 뒤 하산해 교내 상록원 2층 식당에서 만찬을 하며 여흥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남산걷기대회에는 서영준 (64/68법학, (주)동양 회장)동문이 기념타율 250매를, 흥종표(94/96행원, 대원인터넷내셔널 대표)동문이 간식용 떡 200개를 협찬했다.

### 85학번 30주년 홈커밍데이

85학번 홈커밍데이(공동준비위원장=김상배, 안영찬) 행사가 200여 동기들이 모인 가운데 10월 24일(토) 오후 중강당과 상록원 등지에서 열렸다.

김상배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를 앞두고 8차례나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좋은 친구들이 많아 큰 힘을 얻었다. 그 응집력이 30년후배인 15학번 후배들에게 이 자리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30년을 더 희망차게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모교의 발전은 모두의 자랑이다”고 말하고 “모교 동국이 크게 빛날 수 있도록 선후배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상동(법학), 차연신(연영) 두 동기



▲ 남산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남산 팔각정에 올라 기념 촬영을 했다.



▲ 85학번 동문 200여명은 입학 30년만에 모교를 방문해 ‘화이팅’을 외쳤다.



▲ ROTC동문회가 체육대회를 통해 선후배간 우의를 다졌다.



▲ 82학번 동문들이 운동장에서 가을운동회를 열고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다.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는 △15학번 인사 및 장학증서 전달 △감사패 전달 △추억의 영상 관람 △환영공연 △86학번 대표에게 동문재상봉 깃발 이양 △교가 제창 순으로 치러졌다.

2부행사는 장소를 상록원으로 옮겨 만찬과 함께 △학과별 참석자 소개 △장기 자랑 △경품 추첨 등을 가진뒤 재회를 약속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 ROTC 한마음 체육대회

112ROTC동문회(회장=정진우) 제7회 한마당한마음 체육대회 및 제5회 남산길 걷기대회가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모교 체육관 및 추억의 남산길에서 열렸다.

회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흘수 기수와 짹수 기수로 나누어 탁구, 배구, 족구 등의 경기를 펼쳤으며, 종합우승은 짹수 기수가 차지했다.

정진우 동문회장은 개회사에서 “체육대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풍요로워지고 있다”면서 “화합 단결하여 동국 발전으로 승화시키자”고 인사했다.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나라를 지켰던 기상과 정의감을 이제는 동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체육대회를 쳐음 출범시킨 △성영석 명예회장의 축사 △김대성 112학번단장의 격려사 △김환진 차기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체육대회는 행운권 추첨 등과 시상식으로 마무리 지은 뒤 총동창회 주최 제5회 남산길 걷기대회에 합류해 모교에서의 추억쌓기 등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 82학번 가을운동회

82학번 동기회(회장=윤병관, 화공) 가을운동회가 10월 24일 오전 10시 회원 1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모교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체육대회는 김종필(행정)동문 사회로 개회식을 가진 뒤 족구, 축구, 발야구, 여자 발야구 등과 단체게임으로 디스코 달리기, 장기 자랑 등이 펼쳐졌다.

대운동장을 방문한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82학번은 3년전 홈커밍데이에서 만난 이래 끈끈한 우정으로 동국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면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하며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날 82학번인 이건열 모교 야구부 감독은 “대회때마다 매번 응원을 아끼지 않은 동기들에게 늘 감사했다”며 전 회원들에게 운동모를 기증했다.

## 경제학과 신임 집행부 구성

### 회장 송일호 – 사무국장 오수환 동문



경제학과동창회(회장=한영희) 총회가 11월18일(수) 오후7시 모교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에서 열려 신임 회장에 모교 경제학과 송일호(79학번, 前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행정대학원장) 교수, 사무국장에 오수환(84학번, (주)투어마켓 대표이사)동문을 선출했다.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임원 선출과 함께 경제학

과 활성화의 일환으로 회칙 개정과 함께 70주년기념 행사 준비 등의 2016년도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총회는 신관호 사무국장 사회로 △전영화 총동창회장 축사 △박강식 명예교수 격려사가 있었으며, 전임 회장단인 한영희 회장과 최윤식 감사에게 전회원 명의의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경제학과는 총회에 앞서 각 기수별 모임 파악과 대표자 모임을 통해 총회 절차, 참석 목적, 차기회장 추천을 논의해 왔었다.

## 교육학과 장학금 '펀딩' 결의

### 40주년 기념식… 신임 회장에 김종찬 동문



교육학과동창회(회장=강창호)는 11월6일 모교 학림관 소강당에서 가진 학과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장학사업, 재능기부를 통한 동문 멘토링,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 새로운 미래비전을 만들었다.

강 회장은 "100명의 동문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값을 기부하면 1년에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모을 수 있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교 교육학과장 조상식 교수는 "동문 및 가족들의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패트너로 대학이 제 역할을 한다면, 동문들이 특별과정 교육비의 50%를 학교에 기부하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반값등록금 실현도 어려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김종찬(82학번, 씨네우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에 안태호(85학번, 삼진제약 영업소장), 감사에 조종미(81학번, 에이서 유학원장) 이관호(85학번, (주)판타지 움 기획실부장)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 동행라이온스 연세대클럽과 자매결연



▲ 자매결연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왼쪽이 홍종표 회장)

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 홍종표)과 연세세라이온스클럽(회장 염세천)은 10월 27일 모교 상록원에서 자매결연을 맺었다.

두 클럽은 대학 간 교류와 친목 도모,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힘을 모아 사랑이 가득한 서울,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한편 동행라이온스클럽은 이날 동행연우회(회장 법타스님) 산하 어린이집과 모교 정각원 산하 복지시설에 빵 2,000개를 전달했다.

### 동행라이온스 장학금 지급

본회 전영화 회장은 7월30일 오후 동창회 회의실에서 윤기영(경찰행정학과 4학년)군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면학정진을 격려했다.

이번 장학금은 동행라이온스클럽(회장=홍종표)이 7월28일 본회에 지정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한 것을 이날 지급하였다.

## ROTC 정기이사회서 장학금 수여

### 차기 회장에 김환진 동문



ROTC동문회(회장=정진우)는 10월7일 오후 모교 상록원 교직원식당에서 정기이사회 및 기별회장 단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에 18기 김환진(76/80경행) 동문을 선출했다.

신·구 회장 취임 및 이임식은 오는 12월9일 갖는다.

1기 원용선(총동창회 상임고문) 고문 등 임원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기이사회는 이학균 사무총장 사회로 사업결과보고와 2016 사업계획, 112학회단 현황 소개 등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 정환민(7기) 사무총장은 총동창회 소식을, 박대신(11기) ROTC 전 회장은 GS칼텍스 보너스카드 적극 사용을 홍보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성영석 ROTC 장학회장이 후배 후보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용맹정진을 격려했다.

## 컴퓨터공학과 모교에 1억원 기부

컴퓨터공학과동문회 장학회(회장=김승찬, 72/76전산, (주)가트텍 대표이사)가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 1억 원을 모아 모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9

월11일 약정서를 전달했다.

강용화(컴퓨터공학과 2학년)군 등 재학생 3명에게는 1인당 150만원씩 총 45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 남가주동문회 가족동반 야유회



남가주동문회(회장=박영규, 80/84정외)가 9월26일 테미큘라에서 가을 야유회를 열어 동문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했다.

이날 야유회에는 동문 및 가족 41명이 참석해 와인 시음과 퀴즈대회 등을 갖고 동국가족의 일체감을 과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 성료

제8회 영남지역 동문 골프대회가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회장=김석만) 주관으로 10월28일 경남 양산시 소재 동부산CC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경남, 부산, 사회과학대학원, 직할 경주, 행정대학원울산, 경주캠퍼스 재직동창회 등 영남지역 7개 단위동창회에서 160여명이 참가했다.

시상식에서 전영화 총동창회장은 "오늘 함께한 동문들의 동국사랑이 모교와 동창회 발전의 훈훈한 바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서 모교 석좌교수인 황수로 동부산CC 회장은 동국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오원배 대외부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회 참가에 앞서 전영화 회장은 박종수(삼진어묵 회장), 이주환(제6대 부산광역시의원), 전창학(부산경찰청 제2부장) 동문을 차례로 방문,

격려했다.

한편 전영화 회장은 골프대회 참가자 전원에게 부산 원조 삼진어묵 세트를 선물로 전달했다.

### 법타스님, 컬러복사기 기증

본회 상임부회장 법타스님(67/74인철)이 10월8일 업무용 컬러복사기 1대를 총동창회 사무처에 기증했다.

법타스님은 정환민 사무총장에게 구입비 2백만원을 전달하면서 "지난 4월 모교 정각원장을 퇴임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후배장학금으로 보태려했으나 동국장학회가 유고상태여서 대신 복사기를 기증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우리 동창회가 동문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크게 발전하고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총동창회 본안소송 '승소'

1년 6개월여동안 진행된 동창회 정통성 소송에서 이변은 없었다.

현 총동창회를 부정하는 박용재 문병호 이황 정안석 등은 지난 6월 소위 본안소송인 '이사회·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9월 17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이들 불법동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9월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동창회 유사명칭 사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11월13일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총동창회(회장 전영화)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유수택 박용재 문병호 이황 정안석 등 5인에게 앞으로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유사 명칭 사용 △총동창회보 발행 △전화·이메일·휴대전화문자·회보·통신문으로 27대 총동창회 지칭 △27대 동창회 명의 행사 개최 △27대동창회명의 계좌 개설 및 모금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결정했다.

## 회비 늘면서 빠르게 안정

### 5.28 총회이후 800여명 동참

지난 5월28일 전영화 총동창회장 취임 이후 각종 동창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11월25일 현재 임원회비와 년회비, 발전기금 입금액은 총 2억1천여만원에 이른다.

납부자 수는 800여명이다.

이 같은 실적은 평년에 비하면 2/3 수준이지만, 한편으로 분규 후유증이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비 납부에는 국내외는 물론 1950년대 학번부터 2010년대 학번까지 고루 참여하고 있다.

고문인 월탄 큰스님(64/68불교, 종비생 1기, 전 법주사 회주)은 고문 분담금을 보내면서 "동창회는 참여와 관심이다. 25만 동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창회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또 2013년 12월부터 매월 1만원씩 발전기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오선호(84/88영문, 빅톤아이앤씨

대표)동문은 "모교나 동창회가 잘 되기를 바랄뿐이다. 조그만 성의지만 힘닿는데 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찰에서는 동명사가 2014년 3월부터 매월 2만원씩을 보내 본회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이관택(75/84무역, (주)대신개발상무)동문은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기본 회비도 못냈다"면서 "최근 2년분과 금년도 회비 등 3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했다"고 전해왔다.

한편 정환민 사무총장은 "총동창회에 신뢰를 보내주신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동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동창회로 일신시키는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납부자 명단 12·13면〉

## 영화 '암살' 5백명 단체관람

본회(회장=전영화)가 주최한 동문초청 영화 '암살' 단체관람 행사가 8월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에서 5백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영화 '암살'은 이정재(연영99학번) 동문과 전지현(연영00학번)동문이 주인공을 맡았다.

이날 행사는 이정재 동문의 영화 관람 초청으로 진행되었으며, 본회 상임부회장 홍종표(94/96행원, 동행라이온스클럽 회장)동문은 6백명분의 간식용 떡을 협찬했다.

## 백령도 안보견학 다녀오다

본 총동창회 주관 백령도 안보견학 행사가 전영화 회장을 비롯 43명의 동문이 동참한 가운데 9월21~22일 양일간 백령도 현지에서 열렸다.

안보견학은 남북 대치상황의 실상을 살피고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동문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박2일동안 안보강의, 천안함 위령탑 참배, 주둔부대 방문 등의 행사를 가졌다.

나 | 의 | 주 | 장

## 학교법인 임원은 각계 전문가·명망가를 세워라

모교 동국대가 올해 중앙일보 평가에서 19위에 그쳤다. 지난해 11위에서 1년만에 8단계나 추락하면서 상승세가 무너졌다. 이를 두고 동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모교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대 연고대에 이어 성균관대와 함께 중상위권에서 흔들림이 없었다.

모교의 위상이 올라가면 그것은 곧 동문들의 자부심이 된다.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수혜를 입는다. 지금 재학생들은 취업전선에서, 졸업한 동문들은 직장내 보직과 승진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평판도는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지 출신대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겠지만, 세상은 은연중에 출신대학을 그 사람의 1차적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응, 그 대학 출신이구먼”하는 선입견으로 능력의 유무를 예단한다. 그것이 올바른 평가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 왜 답보 내지 역주행하는가

재학생이나 졸업생은 한결같이 학교법인(재단)이 대학발전의 장애 요소라고 지적한다.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진 모교가 이상적 교육목표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보

수적 태도 때문에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만 봐도 그렇다. 학교법인 정관 규정이 1969년 2월 28일 처음 시행된 이후 2015년 현재까지 46년동안 이사진 구성비율은 승려수가 절대 다수였다. 법인 이사진의 2/3가 승려이고, 그나마

도 각 계파간 나눠먹기식으로 비쳐지고 있다. 승려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역동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나 경영마인드가 뒤쳐진다고 말한다. 일부에서는 법인전입금도 미미하다고 평가한다.

다른 사립대학들은 재단이사로 국무총리 출신, 대기업 CEO, 사회 저명인사, 학교운영전문가 등을 망라하고 있다. 타종교대학의 재단임원 구성을 보면 기독교재단인 연세대는 이사 12명 중 목사이사는 2명뿐이고, 이화여대는 12명 중 전원이 사회 저명인사이다. 가톨릭재단인 서강대는 12명 중 신부이사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림 재단인 성균관대는 삼성그룹에서 맡았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 불교계 변화 백년하청 아니길

나에게 불교계는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경험의 남아 있다. 종로경찰서장 재직때의 일이다. 1998년 12월

조계종 총무원장 3선 연임을 지지하는 총무원측과, 이를 반대하는 개혁회의측 간에 조계사에서 50여일 넘게 돌과 화염병이 난무했다. 이 분규사태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하던 중 새벽 2시경 개혁회의 측이 전기선을 절단해버린 깁깝한 어둠속에서 난동주범을 색출해야했다. 비상수단으로 경찰 서치라이트를 켰는데 “아뿔싸” 대웅전 처마밑에서 느닷없이 시커먼 연기가 피어 오르지 않은가.

이를 보고 깜짝놀라 소방대원을 긴급 투입해 대웅전 뒷쪽 문 자를 쇠까지 쇠톱으로 잘라내고 불상 좌대 밑 발화점을 찾아내 사력을 다해 불을 껐다. 대한민국 불교의 심장이자 세계적 불교의 상징이며 서울시 보물인 조계사 대웅전이 하마터면 불에 타버릴 뻔한 순간이었다. 내가 동국대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 암흑 상황에서 사찰을 살피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스님들의 행태를 보고, 1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다시 불교계와 모교의 법인이사 구성을 보면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종단은 동국대에서 불교종립대학으로서의 불교정신만 갖고, 이사진 구성은 사회적 명망가와 경영전문가 집단으로 문호를 활짝 열자는 것이다. 즉 승

려이사 축소, 재가(불자)이사 확대가 핵심이다. 현재의 법인이사 총 13명중 승려이사와 재가(불자)이사의 비율 9:4에서, 순차적으로 4:9로 바꾸어 대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맡고 있는 성균관대처럼 대기업 집단이 들어와도 좋을 것이다.

### 동국발전 100일 축원법회 열자

지금도 늦지 않았고 길은 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로 모교가 10년 내에 국내 10위권 진입 목표(동국대발전 10-10프로젝트)를 달성하도록 총동창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동문들부터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국대발전 100일 축원법회’를 열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노력 등으로 승려이사 독점체제 극복에 나서야 한다. 교수, 학생, 동문 모두 지체없이 모이고 뭉치고 외쳐서 동국대를 살리는 길에 함께 나서자.



김영화

(63경행과 · 전  
종로경찰서장  
총동창회 상임  
부회장)

## 4.19혁명정신 계승하여 역사에 영원히 빛내리!

11대 임원들이 다시 12대 임원으로 연임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제12대 임원 명단

(임기 2016. 1. 1 ~ 2017. 12. 31)

고 문 김남수 김정걸 박영식  
박희부 신승길 오진모  
원용선 이용익 이인진  
지도위원 국기일 김만두 김만율  
김명기 김성재 김칠봉  
라명열 박시혁 박태술  
송용석 양승조 이동익  
이순권 이해종 조국형

최재오  
운영위원 권석철 김기권 김명희  
김성말 김응조 김인규  
김종서 김창배 김치국  
박홍규 심재익 원기영  
윤두옥 윤영길 윤정하  
윤청광 윤홍섭 이순우  
이순우 이진상 이창호  
이철우 장근도 전대길  
최동선  
명예회장 윤성열

회장 라동영  
수석부회장 박대혁  
부회장 김경성 김희오 민경진  
안병창 윤대섭 윤천영  
이남형 이명용 이정길  
지해식 최덕현 최종숙  
사무총장 이채옥  
감사 강수일 조태호

### 상무위원회

(임기 2016. 1. 1 ~ 2017. 12. 31)

의장 박승정  
부의장 이채옥  
위원장 이현찬 임선교 전영윤  
정진영 홍치유 김교근  
김동원 류대진 박부엽  
이호만 조희영 박봉선  
전진표  
(성명 가나다순)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

## “나의 펜은 피… 난 쓰는 것으로 존재”

### 목월문학상 문정희 동문



한국시인협회 회장인 문정희 동문(국문학과 66학번, 동국대 석좌 교수)이 최근 제8회 목월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시집 ‘응’(민음사)이다. 이 상은 경북 경주 출신인 소설가 김동리(1913~1995)와 시인 박목월(1916~1978)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경주시 와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제정했는데 문 동문은 목월문학상(시)을 수상했다. 상금은 7,000만원. 시상

식은 12월 4일 경주시 The-K 경주 호텔에서 열린다.

문 동문은 11월 12일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다음은 동아일보에 보도된 문 동문의 수상기념 인터뷰 전문이다.

#### 수상 시집 ‘응’ 활달한 여성적 에너지 가득 담겨

“여고 시절 ‘문학의 밤’ 행사에서 목월 선생이 릴케의 시를 들려줬을 때 시인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목월은 열일곱 소녀 안에 들어 있던 시인을 꺼내 준 분이다. 목월의 이름으로 상을 받게 돼 끊임하다.”

수상 소감을 묻자 문정희 시인은 밝은 목소리로 기쁨을 전했다. 목월은 미당 서정주와 함께 문 시인을 등단시킨 심사위원이기도 하다. 그

만큼 인연이 깊다.

수상작 ‘응’은 여성적 생명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문 시인의 활달한 에너지가 담긴 시집이다. 신사임당, 어우동, 혀난설현, 나혜석 등 역사 속 여성들이 등장해 다채로운 여성의 힘을 보여 준다. 문 시인은 “이 시대의 언어는 허탕불처럼 더럽혀져 있고 불안하고 산만하다”면서 “싱싱한 야성을 노래하는 시집을 통해 메시지나 감동보다 매혹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했다.

독특한 제목 ‘응’에 대해선 “시가 차오를 때의 시인의 대답”이라고 설명했다.

시집에 수록된 시 ‘불을 만지고 노는 여자’에서 그는 여성의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노래한다.

“여자가 시를 쓰는 것은/불을 만지고 노는 것과 같다/몸속에 키운 천둥을 훌로 캐내는 일과 같다/소리 없이 비명처럼 내리는 비로/땅 위에 푸른 계절을 만드는”

여자는 그 자체로 철학이요 현재라고 생각한다는 문 시인은 “자본과 속도와 경쟁이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시대에 모태와 사랑을 노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묻자 문 씨는 “나의 펜은 피”라면서 “오직 쓰는 것으로 나는 존재한다”는 답을 들려줬다. 한국시인협회장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난다는 그는 “떠돌이, 외톨이, 독립군의 작가로 돌아가 자유와 고독을 포식하고 싶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목월문학상 심사위원회(권기호 신규호 김기택 문효치 정호승)는 “원초적 생명력이 가득한 그의 시는 터치가 굵고 거칠었다. 여성 시인인데도 오히려 남성적 스케일이 느껴진다”면서 “서재이면서 자궁이기도 한 그의 시의 사당에서 앞으로 더 큰 접신(接神)의 시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10.22. 동아일보 김지영 기자〉

### 취임 · 영전

#### 외식산업협회 대전·충남지회장



김종완(66/73법학) 동문이 43년여의 대전문화방송 생활을 마감하고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 대전·세종·충남광역지회 회장으로 지난 7월 취임했다.

#### 서강전문학교 총장



강영규(70/77경행) 동문이 9월 15일 서강전문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강 동문은 경찰대학장 등 경찰 요직을 거쳤으며, 경비보안업체인 (주)시큐어넷 대표이사와 서강전문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 라마라다시 플레이닝 커미셔너



안창해(72/76철학) 동문이 6월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마라다시의 플레이닝 커미셔너로 임명되어 도시개발 전반에 걸친 심의를 담당한다.

현재 LA에서 샌디에고까지 배포되는 한국어 주간신문인 타운뉴스 CEO 겸 발행인으로 있다.

#### 한일산업 대표이사



유황찬(74/78정외) 동문이 8월 20일 한일시멘트그룹 인사에서 한일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 북경현대기차 총경리



이병호(76/83경제) 동문이 8월 18일 있은 현대자동차그룹 인사에서 북경현대기차 총경리로 임명됐다.

#### 금성백조주택 각자 대표이사



김호(78/84건축공학) 동문이 10월 1일 중견건설사 금성백조주택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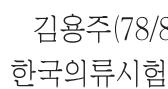
####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민수(79/86경제) 동문이 8월 10일 법무부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취임했다.

재선양 부영사, 김포 출입국관리소장을 지냈다.

#### KATRI 부원장



김용주(78/82화학) 동문이 8월 18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부원장

에 취임했다.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김준호(79/83행정) 동문이 9월 24일 한국투자금융협회 자율규제위원장에 선임됐다.

상근임원으로 2018년까지 3년간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이사장



장동현(81/87무역) 동문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신임 사업부 담당 부이사장(CIO)으로 선출됐다.

취임은 11월 13일.

1998년 ‘장동현 펀드’로 이름을 낼린 자산운용 전문가로 펀드 설정 6개월 만에 30%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했다. 우리자산운용 운용본부와 신성장본부 총괄전무를 거쳐 2014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자산운용인프라발전자문위원으로 재임했다.

####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박윤석(83/87법학) 동문이 8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장에 취임했다.

1997년 제39회 사

법고시(연수원 29기)에 합격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대구지검 공판부장 등을 거쳤다.

#### 관동대 방송연예과 교수



정미숙(84/88연영) 동문이 7월 1일자로 2016년 신설되는 가톨릭관동대학교 방송연예과 교수로 부임했다.

KBS 15기 공채탤런트로 활동했으며, 러시아국립영화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 한서대 문화재보존과 교수



곽동해(85/89미술) 동문이 2015년 2학기부터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부교수로 임용됐다.

모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모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를 해왔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본부장



양찬희(86/93법학) 동문이 10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로봇제조 전문 '스맥' 대표이사**

최영섭(87/95회계) 동문이 9월2일 공작 기계 및 산업용 로봇 제조 전문 기업인 스 맥 대표이사에 선임 됐다. 기업 경영기획 및 재무 등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맡는다.

**강원 철원소방서장**

김성주(92/99경행) 동문이 9월2일 강원 철원소방서장에 취임 했다. 1999년 소방간부 후보생(10기) 소방공무원이 됐다.

▲김종승(74/78식공, 한국보건산업진 흥원 수석연구원) = 계명대 교수

▲김중범(86/93식공, 경기도보건환경 연구원) = 순천대 교수

▲최강주(82/86경행) = 서울구치소 장

▲유병철(84/88법학) = 서울남부구 치소장

▲장종선(대학원박사) = 서울성동구 치소 총무과장

▲김천희(86/93행정) =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조사관 승진

**수상****대한민국최고국민대상**

김태원(71/75연영, 국회의원)동문이 10 월5일 2015대한민국 최고국민대상 국토교 통복지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이투데이신문이 선정한 제19대 국회의정활동 1위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발전대상**

안병용(80/83행원, 90/94대원, 의정부시 장)동문이 10월11일 (사)한국언론인연합 회가 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발전대상(지역경제부문 특 별대상)을 받았다.

**국제 사진페스티벌 1위**

재미 사진작가 이성 수(91/09통계)동문이 라이카 100주년기념 국제사진전에서 유명 작가 5인중 1위에 선 정되었다. 2013년 모스크바 국제사진 전 3위.

이 동문의 작품사진은 11월4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DDP)에서 열렸던 '서울뉴욕포토페 스티벌2015'에서 전시 된바 있다.

**행사****충신각건립신도비 제막식**

유영수(62/66행정, 세무사, 충민공류사 선생주모사업회장) 동문은 11월7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충신정려각 현장에서 충민공 유사 선생 충신각건립신도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독도는 통곡한다' 출판모임**

법타스님(67/74인 철, 본회 상임부회장)의 신간 <독도는 통 곡한다> (해조음) 출판기념모임이 11월 9 일 저녁 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4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완상 전 부총리 와 정인악 평불협 이사장, 전영화 동 국대총동창회 회장이 축사를, 마가스 님과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이 견배사를 통해 각각 법타스님의 역자집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축 하했다.

**신간 저서****문학인생 45년 사진집 '길'**

조정래(62/66국문, 소설가)동문이 45년 의 문학인생을 회고 하는 사진집 '길'을 폐냈다.

이 책에는 돌부터 지난해 전남 보성군 벌교의 조정래 태백산맥문학관을 방문해 찍은 사진까지 모든 인생 여정을 담았다. 410장의 사진마다 회상하듯 설명을 달았다.

조 동문은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 베스트셀러 대하소설을 발표 한데 이어 2013년에는 '정글만리'로 선풍을 일으켰다.

**여보게! 이제 한술 쉬어가세!**

정재기(64/68정외) 동문이 고희를 맞아 최근 자전적 수필집 <여보게! 이제 한술 쉬어가세!>를 폐냈다.

**김종필 동문 특강 … '사람애(愛) 빼자'**

의 산중 한 곳에 위치하고, 또 모름 지기 우리 자신이 나온 대학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위기를 띠운뒤 "삶이란 '사람' 글자의 합성어이며 인맥관리란 인간에 대한 존경, 삶에 대한 통찰이 중요하다"고 특 강을 이어갔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날 특 강에는 전영화 총동창회장과 한태 식 모교 총장 등 65학번부터 15학 번까지 각계 동문 120여명이 수강 하는 호응속에 국민 아나운서 한 상권(89경영, KBS 아나운서 부장) 동문의 사회로 1시간동안 공감과 응원으로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한편 이날 최광선(82법학, 별내 립농원 대표)동문은 손수 재배한 감자 100박스를 가져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며 사람애(愛), 동국 애(愛)를 나눴다.

구성은 △제1부\_이런 생각 저런 생 각 △제2부\_기행문 △제3부\_잡문(雜文) 잡설(雜說) △제4부\_내가 걸어온 길로 구분되어 있다.

**세계장애인물史**

방귀희(76/81불교, 솟대문학 발행인, 한 국장애인예술인협회 회장)동문이 최근 장 애를 딛고 위대한 업 적을 남긴 세계적 위인 130여 명의 이 야기를 담은 '세계장애인물사' (솟대)를 폐냈다.

**4번째 저서 '일어나다'**

박성배(79/86공경, 한우리교회 목사겸 하우리미션밸리 대 표)동문이 4번째 저 서 '일어나다'라는 책을 폐냈다.

이 책은 '고난은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명제 아래, 힘겨운 삶을 이겨내

고 행복을 품에 안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와 노하우를 담은 책이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책, 사람, 꿈, 믿음'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든든한 삶의 버팀 목으로 제시한다.

**두 번째 시집 '별빛 극장'**

제주시인 한승엽(85/92국문) 동문이 두 번째 시집 '별빛극장'을 폐냈다. 소소한 마음과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로부터 아름다움이 떠오르 는 것을 드러내는 시편들을 모았다.

**프란치스코 교황 육성어록집**

진슬기(98/04국문, 천주교 신부)동문이 프란치스코 교황 방 한 1주년을 기념하여 2번째 번역서 '그대 를 나는 이해합니다' (가톨릭출판사)를 폐냈다.

**'알림방' 개설 …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총동창회의 정보소식통 '알림방'을 개설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각종 동정과 애경사 등을 홈페이지나 동창회보, 이메일, 밴드,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 개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본인이나 주변 동문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연락처 : 02) 733-0303, 팩스 : 02) 733-0306, 이메일 : dongguk@naver.com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처**

## 동국장학회 정상화 시급

### 장학금 모금·지급 사실상 중단 상태

총동창회가 설립,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파행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3월 25일 총회 이후 총동창회 정통성을 놓고 법원소송을 거치는 와중에 장학금 모금 및 지급 등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다.

장학회는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장(정관 21조)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15인, 감사 2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 임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동창회장은 당연직 이사장’

정관에 따르면 법원 판결에 의해 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전영화 총동창회장이 장학회 이사장을 맡도록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임기가 끝난 이연택 전 이사장 측은 현재까지도 기금 통장과 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고 편법적 운영을 자행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1995년 2월 21일 황명수 총동창회장이 주도하여 기본재산 331,530,552원으로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를 출범시켰으며 그 해 9월 22일 재학생 12명에게 첫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어 2009년 12월 17일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본 재산을 10억 원으로 늘렸다.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2천여명에게 20여억 원에 달한다.

장학회는 20여년 동안 역대 동창회장을 경유하면서 재원과 수혜자도 늘어나 동문간 유대관계 강화와 후배들의 면학열기 진작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해를 거듭할 수록 장학금 규모와 수혜인원이 늘어나면서 장학사업은 동창회 운영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아 왔다.

#### 내홍 빌미삼아 파행 운영

정관대로라면 2014년 6월 27부터 7월 10일 사이에 임기가 끝나는 8명의 이사(박준형 원용선 한우삼 송석환 서영준 김진문 나경미 구

자선)와 2명의 감사(김진역 이홍섭) 후임을 4~5월 중에 선임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연택 측은 동년 8월 20일에야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성원미달로 유회되었다. 동년 10월 10일 이사회를 재소집해 후임이사를 선임했지만 정관 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직이사(15명) 과반수가 아닌 임기남은 임원을 기준으로 삼아 측근 3명이 10명의 임원을 선임했다.

임원 선임의 문제점은 이연택 전 이사장의 장학회 운영에 반대 성향이 짙은 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의혹이 있는데, 새로 선임했다는 임원 일부는 장학금 납부 실적이 전혀 없다.

10월 31일 이연택 측은 박종윤 동문을 장학회 이사장에 선출했다고 승인 요청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불허했다.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동창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정관(제 21조 1항)에 따른 법적 요건이 종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연택 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대표권 있는 임원취임 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판결직전인 2015년 10월 8일 소를 취하했다.

####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은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 11월 10일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특감 과정에서 장학회 풍자와 인감도장은 몇 달 전 박종윤 동문이 회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환민 사무총장은 “지금 여러 동문들이 장학금 출연을 문의하고 있으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업이 그렇듯 책임자의 사심은 당초의 순수성을 변질시켜 애써 만든 기반을 허물어트린다. 적어도 장학회만은 정관에 따라 순리적으로 정리하여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 대학평가 1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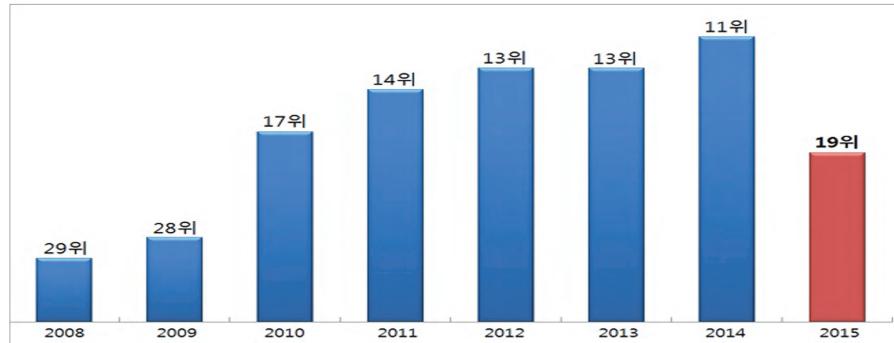
### 8단계 하락…학교 안팎 우려 목소리

2015 중앙일보 대학종합평가에서 모교(서울캠퍼스)는 19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순위였던 지난해 11위보다 8단계 하락한 결과다.

10월 20일 발표된 올해 종합평가 지표에서 모교는 ▶교수연구 25위 ▶학생교육 노력 및 성과 6위 ▶교육여건

21위 ▶평판도 27위를 차지했다.

올해 순위 하락에는 평판도(27위, 27.62점/60점 만점)가 작용이 커졌다. 지난해 평판도 순위는 15위였다. 교수 연구(25위, 57.19점/110점 만점) 부문도 이번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 ‘QS세계대학평가’ 501~550위권

모교는 9월 16일 알려진 ‘2015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14위, 세계 순위 501~550위에 올랐다.

QS(Quacquarelli Symonds)와 조선일보가 전 세계 3,53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40%)과 △교수 논문 피인용 수(20%), △교수당 학생비율(20%), △기업계 평판(1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원 비율(5%) 등을 평가했다.

모교는 그동안 쌓아왔던 연구 경쟁력과 차별화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계 평판과 교수당 학생비율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3년 연속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3년 601~650위 등급에 머물렀던 모교는 지난해 551~600위 등급에 오르며 600위 내에 처음으로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501~550위 등급으로 세계대학순위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 사법시험 최종 8명…7위 차지

11월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57회 사법시험에서 모교는 동문 및 재학생 8명이 최종 합격했다.

모교는 지난해 5명(2.5%)으로 11위에 그쳤지만, 올해 2차 합격자 기준으로 7명(5.0%)에 달해 7위에 오르면서 ‘Top 10’ 진입에 성공했다.

이번 시험에서 김상선 동문은 최고령 합격자가 되었다.

#### ◆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 △김상선 (법학과 94학번)
- △김소엽 (법학과 97학번)
- △김주오 (법학과 00학번)
- △박현우 (법학과 07학번)
- △성혜진 (법학과 10학번)
- △박미소 (법학과 09학번)
- △유재별 (경찰행정학과 04학번)
- △고광숙 (경찰행정학과 06학번)

## 행정고시 3명 최종 합격

인사혁신처가 11월 17일 발표한 2015년도 국가직 5급(행정) 공채에서 김성희 동문이 법무행정 직렬부문 수석을 차지하는 등 모교 출신 3명이 최종 합격했다. 총 합격자 수는 280명.

- △명노근(정외05)=일반행정
- △박도연(법학04)=법무행정
- △김성희(법학10)=법무행정

## 공인회계사 2차 25명 합격

8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15년도 제50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모교는 25명이 합격, 대학별 순위에서 12위에 랭크됐다. 모교는 지난해에도 25명이 합격했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 회비납부 계좌 안내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5년 7월 16일 ~ 2015년 11월 25일 접수분 >

금액 · 가나다순

#### 상임고문



이민희(52정치)  
100



전준표(53농학)  
100

#### 고문



월탄스님(64불교)  
300



김희형(56정치)  
100



심경모(57영문)  
100



안채란(48국문)  
100



윤일균(67행원)  
100



윤형두(55법학)  
100

#### 해외고문



차경훈(57경제)  
100

#### 부회장



고길호(65경영)  
100



권영남(64경행)  
100



김삼철(63농학)  
100



김상일(75건축)  
100



김석만(89사대원)  
100



김수청(65불교)  
100



김애주(76영문)  
100



김일윤(86대학원)  
100



김종찬(94경영)  
100



김환배(68연료)  
100



문한성(79법학)  
100



박대신(69국문)  
100



박순(66불교)  
100



법운스님(95불원)  
100



선목혜자스님(96불원)  
100



성용스님(91불원)  
100



손학중(65농경)  
100



송일호(79경제)  
100



신동수(71경영)  
100



오정석(72농학)  
100



윤미정(81수교)  
100



윤병관(82화공)  
100



윤부성(61생물)  
100



윤종기(79경행)  
100



이광호(74행정)  
100



이상현(54경제)  
100



이승성(76체교)  
100



이시우(91행원)  
100



이재형(64불교)  
100



이종범(95경원)  
100



이희경(68경행)  
100



정광훈(65상학)  
100



제정스님(89대학원)  
100



조만영(65농학)  
100



조충미(81교육)  
100



허수창(08불원)  
100



황경환(87교원)  
100

## 특별회비



송석환(64농경)

2,000



현진스님(73승가)

200



이정재(99연영)

200



김오현(76체교)

100



홍종표(94행원)

100

## 감사



홍석표(75경영)

100



오수환(84법학)

100

**회비는 1년에 한 번!**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고문	1백만원
• 부회장	1백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연회비	3만원
• 평생회비	50만원

## 특별회비

윤길한(64정외)	이창수(80회계)	오선호(84영문)	박종일(92행원)	양원모(05사대원)	이제일(83경영)	조만수(70경영)
윤용숙(93불원)	이현호(66법학)	오픽성(76농경)	김종호(98문원)	엄철용(09국원)	이종근(95경제)	조병구(67식공)
이순우(60경제)	이홍(78경제)	우진스님(03대학원)	김종호(57정치)	여은규(55영문)	이종서(71법학)	조성실(58경제)
4.19혁명동지회 = 50만원	이제곤(64경제)	장동락(70정외)	김종화(61불교)	박준일(95회계)	이종연(85농경)	조신래(87체교)
노병현(64사학)	인증식(53경제)	유병돈(73공경)	김종환(61불교)	박지환(60경영)	이종인(03대학원)	조영래(89일문)
= 50만원	전진표(60임학)	정사균(95사대원)	김준호(57정치)	박천희(85미술)	이종호(03대학원)	조용범(85경제)
김광남(59농학)	정병립(84행원)	유병준(89행원)	김준호(57정치)	박지형(80수학)	이종찬(56국문)	조정현(01교원)
= \$100	조규영(64행원)	유병준(89행원)	김진대(75경원)	박해준(59경제)	오병훈(62법학)	조준수(87경원)
길기숙(85전산)	조병찬(59농학)	온종석(67구축)	김진대(75경원)	김지권(82영문)	오상진(81법학)	조철규(79승가)
= 10만원	조창원(55경제)	정인석(84경행)	김진대(75경원)	김지연(09대학원)	이종호(78회계)	조통달(94문원)
동명사	조홍기(58영문)	정인석(84경행)	김진대(75경원)	김직렬(03사대원)	이주영(80경원)	조한석(06경영)
= 2만x21회차	최병식(59불교)	정인석(84경행)	김진대(75경원)	김진영(79전자)	이주환(55정치)	조현철(77화공)
오선호(84영문)	화랑스님(74승가)	정인석(84경행)	김진대(75경원)	배경구(81경영)	이준재(71화공)	조회제(00국원)
= 1만x23회차 = 3만x1회차	부회장	이사 10만원	김진대(75경원)	배대원(65행정)	오종수(85건축)	이준호(74화공)
평생회비 50만원	김병은(92행원) 20	강전희(74경제)	김진대(75경원)	배덕진(81식공)	오종철(79행정)	조한영(62법학)
문창수(01정보통신)	황승도(81사회) 10	고명주(66경행)	김진대(75경원)	배봉규(81경영)	오히영(75조경)	조한운(61상학)
상임이사 20만원	구학모(90행원)	이철구(81사회)	김진대(75경원)	박경구(81경영)	이종찬(56상학)	조현설(77화공)
지도위원 30만원	김명희(85미술)	임치성(88경제)	김진대(75경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조휘진(79국사교육)
강병국(64농경)	김상만(82지교)	장대중(68경행)	김진대(75경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지상사
경하현성(72행원)	김상준(92경원)	조시승(69경제)	김진대(75경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지용진(82경행)
김관수(63행정)	김수웅(64경제)	주상길(98경원)	김진대(75경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지정열(85미술)
김낙돌(64경제)	김숙희(67물리)	이철구(81국사)	김준제(52경제)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진성기(99행원)
김명희(59사학)	김영희(71식공)	김인순(80경원)	김성광(65상학)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진성스님(76승가)
김보열(57경제)	김영희(71식공)	진성스님(04불원)	김성연(87통계)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진홍사
김선근(65인철)	구자근(86법학)	차형천(72정외)	김성연(87통계)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차대식(97사대원)
김성강(60법학)	김종범(81전산)	최우수(77경제)	김성연(93행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김성밀(59경제)	김정길(64인철)	나채문(99산원)	김성호(93행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김성수(64경행)	김종현(75행정)	박광수(65경영)	김성호(93행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김진용(58경제)	김창기(95경원)	박대은(97사대원)	김성호(93행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남균우(58법학)	김침성(65농학)	홍성하(65농생)	김용환(74무역)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라동영(59불교)	김현심(81영문)	박명준(71건축)	황규명(65식공)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류정우(58법학)	박봉준(77경제)	박수열(89행원)	김윤기(64인학)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민경진(59경제)	노환숙(67경영)	박수열(89행원)	김윤기(64인학)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박대혁(59생물)	류복수(95사대원)	박영호(64경행)	김윤기(64인학)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박도근(61상학)	박상관(79행정)	박용하(77정외)	김윤기(64인학)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박만갑(64정외)	박종세(92경행)	박주곤(73경행)	김윤상(65정외)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박복식(57법학)	손일환(93사대원)	박천운(67경행)	김은희(90통계)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박수철(53임학)	신관호(69경제)	강경호(03국문)	김익배(79무역)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변태원(59법학)	오학선(92행원)	배보영(97불원)	김익배(79무역)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성낙흔(82행원)	원용근(64경제)	백경선(80불교)	김인술(88경원)	박진희(82영문)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안종진(51영문) 10	윤정민(08한의)	성순경(93불원)	강성범(02불문원)	김인식(64경제)	이준호(78통계)	최수경(95한의)
안종진(51영문)	이강욱(00경영)	손근익(77건축)	강연희(04국제통상)	박윤태(64상학)	이재현(99화공)	정혜영(84건축)
이기영(78경제)	송철호(74체교)	강익수(77건축)	김인태(57영문)	박윤태(64상학)	이재현(99화공)	정혜영(84건축)
양수성(61경영) 10	이상명(83경원)	강종필(81교육)	김자완(92인철)	박장서(57사학)	이재현(92인철)	정호영(78건축)
오만식(90연원)	이서행(67체교) 10	안재근(77경영)	김정길(62농경)	박재원(57경계)	이재현(79임학)	정훈열(82법학)
유영수(62행정)	이준용(04행원)	양경직(65농경)	김정연(99행정)	박재원(86대학원)	이점원(72미술)	정홍락(07대학원)
		강창호(85정외)	김정인(80행원)	박점식(67정외)	이정호(74경행)	정홍진(95불원)